

오늘의 경제를 읽는 새 흐름

'보고서'와 '경영에세이'

미증유의 IMF 구제금융체제를 맞아 경제·경영 실용서 분야에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전까지 이 분야에서는 숫자와 '가지'로 제목을 장식한 책들이 기세를 떨쳤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가진 '신인'들이 등장해 독자의 사랑을 얻고 있다. 이런 흐름을 주도한 것은 외국의 컨설팅 회사가 발간한 보고서들이다.

구제금융을 얻기 전에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해외의 신용평가회사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무디스' 또는 '스탠다드 앤 푸어즈' 같은 회사들이 매기는 국가 신인도에 일희일비하게 된 것이다. 신용평가회사의 지명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 컨설팅회사들의 이름도 귀에 익숙해졌다. 이들 경제 조연자의 '훈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형편이다.

딱딱한 도표와 건조한 문장의 경제보고서

이렇게 보면, 《한국보고서》와 《맥킨지 보고서》(이상 매일경제신문사)의 때이닝 호황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래도 딱딱한 경제보고서가 읽히는 현실은 어쩐지 씁쓸하다. 한국경제가 그런대로 굴러갔다면 《한국보고서》의 '너무 비판적인 진단'은 찻잔 속의 폭풍으로 그쳤을 것이다. 1천부 한정본이 10만부가 넘는 베스트셀러로 환골탈태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보고서》는 '부즈·엘런 앤 해밀턴'이라는 컨설팅회사가 외국의 석학을 비롯해 우리 정부관계자·기업인·금융인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부조직의 대폭적인 개편 ▲금융시장 개혁 ▲교육제도 대수술 ▲노동시장 개선 ▲기업경영 혁신 ▲국제교류 증진 등을 들었다. 그간 시도된 개혁이 실행이 따르지 않은 '구두선'으로 그친 원인에 관해서는 먼저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한 합의 도출이 실패한 점을 꼽았다. 여기에 변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의 결여도 한몫했다. 또한 광범위한 개혁을 주도하고 운영할 확

실한 주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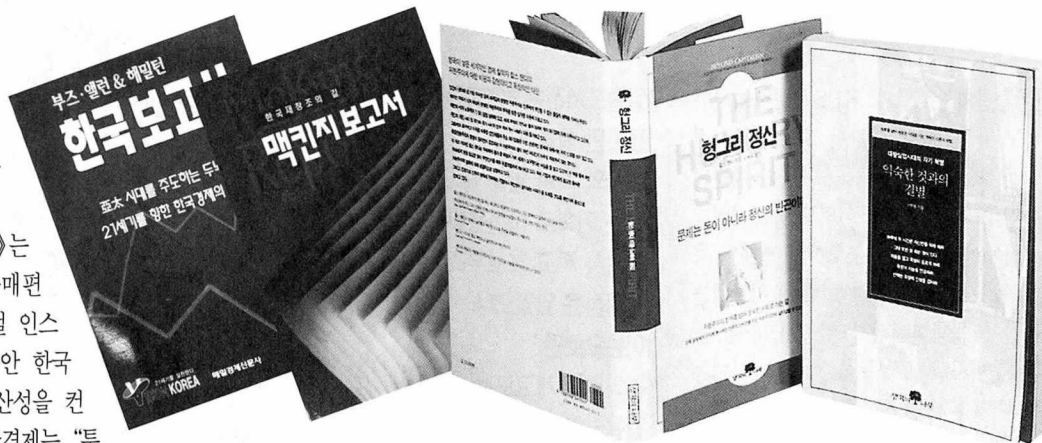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보고서》의 자매편으로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사가 1년 동안 한국 경제 각 부문의 생산성을 컨설팅한 결과다. 한국경제는 "투입보다는 생산성에, 외형보다는 수익에 집중하는 새로운 성장전략,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권의 보고서는 경제지표를 도식화한 수십개의 도표와 건조한 문장으로 이뤄진 책도 팔린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발상의 전환 촉구하는 경영에세이

팍팍한 느낌을 주는 보고서의 한편에는 부드러운 문체의 '경영에세이'가 경제·경영 실용서의 새 물꼬를 트고 있다. '문체미학'마저 엿보이는 경영에세이류는 갓 태어난 출판사 '생각의나무'에서 나왔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과 《헝그리 정신》은 '오늘의 경제·인문·사회' 총서에 속한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의 경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큰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두권의 책은 기존의 경영실용서나 처세철학서와는 구별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부터 다르다. 기존의 책이 '연역적'이라면, '오늘의 경제'는 '귀납적'이다. 내용면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구별된다. 과거의 책들이 응급처치식의 성공 테크닉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오늘의 경제'에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것은 출(퇴)근 과정을 보는 견해 차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에서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출퇴근을 회사 안의 자신과 회사 밖의 자신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간주한다. 따라서 회사가 집에서 가까운 것이 마냥 좋은 일만도 아니다.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구분형씨는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한다. 구분형씨는 조금만 사고를



경제 조연자의 '훈수'가 담긴 책들

진전시켜 보자고 제안한다. 출근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에 더 효율적인 경우, 출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근 프로세스를 아예 없애는 혁신을 통해 무한대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찰스 핸디의 《헝그리 정신》에서는 기존의 프로세스에 대한 의식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의구심으로 발전한다. 핸디는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에스토니아를 든다. 러시아 가장자리의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이 나라에는 이웃한 핀란드

보다 메르세데스 자동차와 이동전화기가 더 많다. 이밖에 20 대 80 사회의 징후를 보여주는 보기를 들고 나서, 흥미로운 자본주의 실험을 지속하려면, 메르세데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새로운 부를 독차지하게 해서 안된다고 경고한다. 보고서들이나 '오늘의 경제'는 체제를 비판하기는 하지만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책들이 경제·경영 실용서로 분류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최성일〉

새롭게 일깨우는 가정의 힘

전통적 가치관 강조하는 경향 두드러져

최근 가정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일깨우는 책들의 출간이 많아졌다. '빨간 마후라' 사건이나 청소년 집단자살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세상을 보다 값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IMF 한파가 가져온 가정의 붕괴 조짐도 이같은 출판 환경을 북돋웠다.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정의 역할을 살핀 근간들은 가정 전반을 다루는 책과 자녀교육의 구체적인 지침서로 나뉘어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다.

가정·가족에 주목하는 책 가운데 이동원

목사의 《가정행진》(규장)과 윤재근 교수(한양대)의 《살아가는 지혜는 가정에서 배운다》(대교)는 성서적 가치관과 전통적 세계관을 통해 가정의 올바른 모습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행복한 가정의 근본원리

1975년에 시작, 20여년간 계속해온 '새생활 가정세미나'의 내용을 담은 《가정행진》은 결혼부터 자녀양육, 중년, 노년기까지 가정과 관련하여 부딪히는 문제를 많은 사례와 경험을 인용해 현실적으로 다뤘다. 특히